

한성대 성곽마을의 인사



한성대 성곽마을의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인사로 풀어보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한성대 성곽마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한양도성 암문입니다. 이곳에서 마을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성대 성곽마을에서 떠나갑니다. 암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마을 내부로 들어와 단절의 공간에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단절의 공간에서 가로막힌 한성대 성곽마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인사로 이어집니다."